"이렇게 달라집니다"…보성군, 민생경제 회복 '총력'

6개 분야·72개 달라진 민생안정 시책 발표

영세 상인·청년·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주력'

보성군이 군민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새해 달라지는 시책을 발표하며 2025년을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22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번 시책은 영세 상인, 저소득층, 청년, 농어업 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민생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 7건 ▲농림·축산 23건 ▲해양·환경·산림 7건 ▲관광·체육 2건 ▲복지·인구·여성 23건 ▲안전·건설·일반행정 10건 등 6개 분야, 72개 제도로 구성됐다.

보성군은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영세 상인과 저소득층 지원에 주력한다.

영세 상인들에게는 공공요금을 포함한 고정비용을 한시적으로 1회 30만원을 지원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는 난방비 10만원을 지급한다.

경로당에는 월 10만원씩 총 30만원의 부식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지역 농수축산물 꾸러미를 제공한다.

보성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주거 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일자리·경제분야는 관내 사업장 주소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융자금 대출 시 이자액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2년까지 지원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바우처택시 운영대수를 25대로 확대한다.

농림·축산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1인 가구 월 4만원, 4인 가구 월 1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또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농업 성장을 위해 스마트팜 온실 설치비 4억원(자부담 20%)을 지원한다.

해양·환경·산림분야로는 재해어선원들의 재활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어선원 재해보험 당연 가입 대상을 3t 이상의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 시행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비율을 60%로 확대하고 대상자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으로 확대한다.

관광·체육분야는 군민 모두가 평등하게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기존 13만원에서 연 14만원으로 상향된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한다.

복지·인구·여성분야는 소외계층 없는 촘촘한 복지행정 실천을 위해 청장년 필수예방접종 지원을 신설하고 인구 증대를 위한 난임 부부 시술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2025년에는 군민 모두가 넉넉하고 든든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의 일상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성=임병언 기자

'곡성형 마을 주치의' 제도 본격 추진

민선 8기 공약사업…의료진 가정방문 맞춤 서비스 제공

곡성군은 22일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곡성형 마을 주치의 제도'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실천 계획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고 전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맞춤복지 분야에 해당하는 '곡성형 마을 주치의 제도'는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40.35%를 차지하는 곡성군의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책이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중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의료진의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중 의사의 판단하에 방문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상자를 선정해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측정 등 기초 검사를 실시하고, 기본적인 진찰 및 건강상담을 통해 약물을 처방하고 복용지도를 하는 등 각종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추진 인력을 확보하고 대상자 선정 및 발굴을 마친 상태로 사업을 구체화시켰으며, 꾸준한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통해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곡성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은 "건강 위험 요인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상자별 방문건강관리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영필 기자

고흥과 여수를 연결하는 육상 관문인 팔영대교에 설치된 경관조명이 23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고흥군 제공〉

고흥 팔영대교, 야간 관광명소 '재탄생'

우주·유자 등 8가지 이미지 LED 조명 설치

고흥군이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목표로 관광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팔영대교를 야간 관광 명소로 새단장했다.

고흥군은 22일 "고흥과 여수를 연결하는 육상 관문인 팔영대교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2월 초 준공에 앞서 23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총 30억원 예산을 투입, 팔영대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한다. 지난 20일 현장 설명회와 연출 시연을 마친 후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군 방문객에게 새롭고 다채로운 야경을 선사할 예정이다.

팔영대교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계절에 맞춰 자동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분위기의 LED 조명을 연출하며 주탑에는 우주, 유자 등 8가지 고흥의 이미지가 담긴 고보조명을 투광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팔영대교 스마트 복합쉼터에서 바라보면 팔영대교의 야경을 한 눈에 즐길 수 있다"며 "고흥 관광에 새로운 매력을 더하고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여수시, 전남 동부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유치

종합상담 창구·직업 교육 등 지원…7월부터 운영 예정

전남 동부권 지자체 간의 치열한 경쟁 끝에 여수시가 '전남 동부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유치를 확정했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방소멸 극복과 외국인 주민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영암군에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동부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후보지를 물색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부시장 직속 부서로 청년인구정책관을 신설하고 관내 유관기관과 운영 장소를 협의하는 등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전남 동부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는 여수상공회의소 내에 설치돼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등 7개 시·군을 관할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상담창구 운영 ▲한국어 및 직업교육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각종 문화사업 등의 외국인 주민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다음 달 4일까지 전남 동부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 후 2월 중 심사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외국인 주민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산업, 농어업 현장에는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여수상공회의소의 장소 제공 등 민관이 협력해 이뤄낸 큰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여수시에는 외국인 주민 1만54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에서 영암군에 이어 2번째로 많다. /여수=김진선 기자

노관규 순천시장, 설 맞아 전통시장 '소통 행보'

지역상품권으로 명절 물품 구매…상인 애로사항 청취

순천시는 "최근 이틀간 설 명절을 맞아 아랫장과 웃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과 시 직원들은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했다. 〈사진〉

또한 시 직원들은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설 명절 물품을 구매하며 시장물가를 살피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등을 점검했다.

노관규 시장은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해 민생안정에 힘쓰겠다"며 "이번 설에는 전통시장에서 따뜻한 인심을 느끼고, 명절 용품을 구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15% 할인 발행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설 명절 물가 안정과 시장 방문객 편의를 위해 물가안정 캠페인과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순천=정기 기자

담양군 보건소가 최근 담양사랑병원을 방문해 명절 전 문병객과 입소자 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병문안 문화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독감 유행 대응 방역 대책 수립

마스크 착용·병문안 문화개선·접종 독려 등

담양군이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대비해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2일 담양군에 따르면 인플루엔자의 전국적인 유행에 따라 군은 감염병 대책 회의를 열어 호흡기 감염병 발생 점검과 지역사회 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요양기관, 담양사랑병원 등 35개소를 방문해 직원과 입소자들에게 마스크 착용법 및 중요성을 안내했다. 또한 전통시장 거리 캠페인, 대형 현수막,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지역민의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독려하고 있다.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명절 전 병문안 가능 시간과 인원을 제한하고, 병원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군은 '확인하고, 자제하고, 지켜주세요'라는 표어 아래 현장 방문, 포스터 부착,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올해 생산된 백신과 유사해 예방 효과가 높은 만큼 어린이와 고령자 등 고위험군 예방 접종을 집중 독려하고 있다.

전남지역 학령기 연령대의 발생률이 유행기준의 19배에 달해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가정통신문 홍보와 미접종자 유선 전화독려를 진행 중이다.

또한 마을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방문자를 대상으로 문자 및 전화 홍보를 지속하며, 65세 이상 예방 접종률 83.7%를 유지하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접종률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남우주 보건행정과장은 "담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게 지속적인 홍보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예방 접종 등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광양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최대 3개월간 월 30만원…복직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광양시는 22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양시에 주소를 둔 고용보험법에 따른 남성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으로 최대 3개월간 월 3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비 전액을 들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수혜 대상자는 120여명 정도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자는 고용노동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남성 근로자다. 휴직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대상자녀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신분증과 장려금을 받게 될 통장 사본, 고용 센터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지참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며, 월 단위 또는 3개월분을 일괄 신청해도 되나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월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장려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발급받거나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광양=양홍렬 기자